가정예배

04 보이는 영광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성경 사사기 8:22-35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은혜의 찬양 231장)

1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 왔고 꿈꾸어 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세상은 변해 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2 예수는 나의 힘이요(찬송가 93장)

2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 읽기 사사기 8:22-35

22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31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본문 배경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사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들은 지치고 피곤함에도 전쟁을 그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군대를 이끌고 숙곳에 이른 기드온과 용사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임을 밝히고 먹을 것을 요청했지만, 숙곳의 방백들은 기드온과 용사들을 조롱하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기드온을 조롱했습니다. 기드온은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을 응징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드온은 갈골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미디안 잔당들을 섬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응징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처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높이며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은 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삿 8:23).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라 선포한 기드온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노략한 전리품을 달라고 하여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에봇을 자신의 성 '오브라'에 두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성공한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 뜻을 구할 때 입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자신의 집에 두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어려움을 가지고 왔음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특별히 성공한 이후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22-23절)

답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22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능력과 지도력에 감동하여 인간적인 왕을 세워 안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23절)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2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24-35절)

답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해설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습니다.(27절)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룩한 도구였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상징적인 권력과 명예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고, 성경은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27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기며(33절),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안정, 성공,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말씀 적용

1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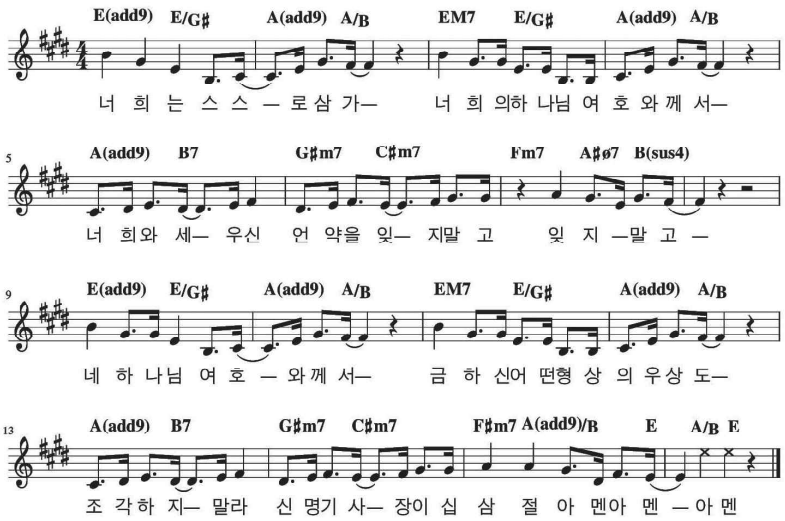
2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 암송

3-4 너희는 스스로 삼가

신명기 4장 23절

작곡 조미진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와 예배로 기억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금 에봇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